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아 응답해 드립니다. 실의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일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를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어떤 것이 부처의 삶인지...

문 항상 보이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인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부처의 삶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예전에 통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통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5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호랑이한테 잡혀간다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사는 길이 있느니라. 모든 일은 손조롭게 응하되 거스리지 말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순순히 먹혀라. 살고 죽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산을 지나다가 천아만아한 산맥에서 대호(大虎)를 만났습니다. 기절을 할 지경인데 문득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는데도 순리적으로 거역하지 않고 그냥 잡아먹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씹지도 않고 삼켰는데 이 스님이 딱 고개를 들고 천장을 쳐다보니 아, 뭐가 달렸거든요? 주머니 하나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니고 있는 장도를 꺼내서 속 도려냈습니다. 뜨겁거나 춥거나 그래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고선 칼을 속 꺼내 가지고 간을 한 점 도려서 꿀떡 삼켰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이거는 요새 말로 오토바이 타고 막 돌길을 가는 거와 같이 날릴 거 아닙니까.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거든요. 그러자 또 한 점을 씹 베어서는 또 꿀떡 삼켰습니다. 아, 꿀떡 삼키니까 또 뛰거든요.

바깥에서는 호랑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호랑이의 증조할아버지가 "애! 너 왜 그렇게 뛰냐?" 하니깐 그냥 물어 죽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뛰냐?" 하고 들으면 또 물어 죽이고, "아버지, 왜 그렇게 뛰냐?" 하면 물어 죽이고, 사방으로 하늘이 높다고 뛰면서 다 물어 죽여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죠,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물어 버리고 자기도 고만 죽게 됐는데, 거기에서 간을 문뜩 떼어서는 조금도 바를 새 없이 아예 꿀떡꿀떡 삼켜버렸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냥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용하거든요. 조용하니까 자기 장도도다 공자를 등그렇게 들고서는 속 나오니까 머리가 훌쩍 다 벗겨져서 그런 말입니다. "다 벗겨져서 참 싱그러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살면서 스님이 하신 말씀도 건성 들었더니 참 싱그러구나. 모두가 번뇌방생을 먹고 산다고 했더니 모두가 싱그러운 그 법력을 먹고 살았구나. 그러하니 망상이라고 떼어 버릴 것이 뭐 있으며, 망상이 아니라 가질 게 뭐 있던가? 푸르고 높은 산 앞은 것을 산이라 하노라." 하고선 내리간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서 통선사와 제자 5만 명이 죽어있었는데 이 스님이 들어가서 은사 스님한테 떡 삼 배를 올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죽 안에 들어서는 죽을 굴릴 수 없노라. 죽 바깥에 나오니 굴러도 굴러도 굴리는 자체가 없더라. 한 손 한 발 달고 한 손 들어 천지를 쥐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건어쥐니 일체 푸른 산 푸른 초목들은 한데 견어 모아서 상투를 들고 내 석장을 빼서 동곳을 삼으니 이 천지 어찌 싱그러우랴. 여기에서 그 동곳 한 점, 5만 명이 오천이 될 수 있고 오천이 한 점이 될 수 있고, 그 한 점이 바로 여기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시노라.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한 손 들고 한 발 달고 절하라." 하고선 버럭 악을 쓰면서 참 공손히 자기 은사스님한테 절을 하거든요. 합장을 곱게 하면서, 그러니 스님께서 "저 산이 항상 푸르다고만 했더니 붉게 익었구나. 붉게 익었으니 흰 구름도 검은 구름도 다 걸렸구나. 열세구절세구 줄을 써구, 우리 살림살이 이만하면 좋을 시고." 하더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리를 허투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남녀를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모른다면, 이렇

나와 남이 더불어 함께하는 선연한 부처의 삶 살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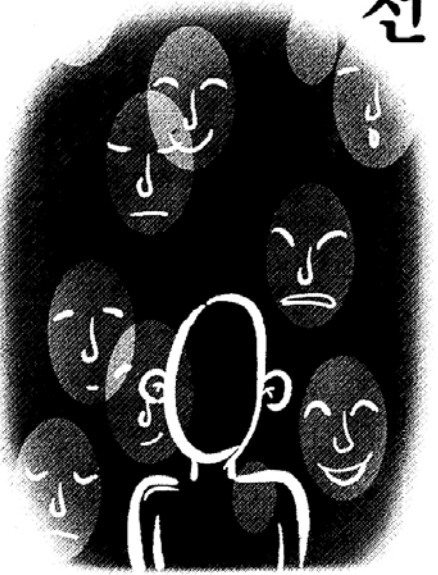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 도라는 것은 이 길, 저 길, 같은 길입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동(洞)길이라는 소립니다. 내가 나오기 이전을 미분전이라고 하는데 천만연오! 날기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내가 여러분과 예전에 앉았던 그때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모른다든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그 이치를 한데 끌어 모아서 우리가 바꿔 가지고 돌아가는 참나참나를,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끊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서 나온 거 자기한테 보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창살이 없는 자기 마음 가운데의 창살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마음의 향아리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내 한 점의 마음을 가지고 수천 가지로 화하고 수천 가지로 나뉘면서 참나참

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 육신이 자기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 근본은 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불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성과 흔히 말하는 영혼은 다른 뜻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은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그대로 굴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성은 힘을 배출해 주는 근원체입니다. 수레가 굴러갈 때 바퀴에 심봉이 있어서 이따금 안 하고 굴러가듯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 속에 의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

하기 때문에 본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치는 대로 그냥 활나활나 나뉜다고 하는 건 건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건넌다고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또 한 발짝 떼어놓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단, 마음에 소속된,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또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거죽에 보호된 장치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구도 안에 있으면 바깥에 지구라는 장치가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과 정신체와 들어 아니게 그냥 끝없이 돌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원이 높게 발족하는 대로 방명을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나를 발견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무조건 거기 맡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도 놓고 선도 다 놓아야 되니까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요.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바깥 해결하지 못했구나. '허거나 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선 그 또한 다시 놓고, 잘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으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양면을 다 놓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으니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놓고, 또한 된다는 생각조차도 놓고, 빨리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놓아 줍니다. 그래서 모

든 일체를 실행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간에 남의 문제라 해도 그렇고, 죄가 된다는 생각도 그렇고 모든 걸 맡겨 놓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관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무조건이요. 이 공부의 이유가 붙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자기 돌아가는, 참나에 돌아가는 자기 주인공한테 그냥 무조건 놓고 지켜보세요. 일체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 맡겨놓고 매사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나간다면 어느 땐가 자성발이 발현이 될 때가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이든지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병고에서 벗어나려면...

문 마음도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정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석에 들고 보니 그렇듯 자신 있게 믿어왔던 제 안의 주인공이 있기는 한 것인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스님, 이렇게 나약한 질문을 올리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닥친 이 병고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늦게 한 몸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파서 늦게 한 몸이 누구냐? 그거를 알면 아파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가 그런 거니깐 일으키는 것도 내가 일으키는 거지. 네가 형성이었으니깐 내가 일으켜라.'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다면, 실사 몸은 누워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한참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듯 그렇게 가벼워질 테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을 하면서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니가 들은 대로 그냥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달리다가 몸 속의 생명들도 꼭 그렇게 들고선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요. 그래서 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아주 미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짝을 성를 뒀어 고 해도 될 수 없으니가 요만큼만 뛰어야지 알맞게고 생각하고 떼어놓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떼어놓고 그냥 막 떼어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자나깨나 전체가 다 참선이요, 싱그러움이요, 법이요, 묘한 도리

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말도 할 수 없으리 만큼 치욕스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세세생생 해탈하니 그 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차 얘기를 하는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서 일할 때는 아무 웃이나 일고 일하다가도 외출을 할 일이 생기면 금방 팔바꿈을 해 가지고 바깥에 나갑니다. 구두를 신고 온통 바르고, 모습을 확 바꿔 가지고 말입니다. 하루에 두 번이나 그렇게 바꿉니다. 어느 장소에는 이렇게 입고 가고 어느 장소에는 저렇게 입고 갑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신령스러울 만큼 모습을 바꿔가면서 살고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눈을 부릅뜨게 되고, 속이 안 상하고 태평하고 즐거우면 해바라기처럼 즐겁게 웃고, 또 너무 화가 나서 부득부득 뭐가 일어나면 막 부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화를 냈으면 화를 낸 대로 행이 나오고, 웃을 때는 웃는 대로 행이 나오고, 울 때는 우는 대로 행이 나오니까, 그 행이 바로 팔바꿈이 아닌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모습 자체도 변해가면서, 물건이 전부 부서지고 변해가고 없이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체 만법이 다 똑같은데 얘깁니다.

항상 말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 다니면서 봤는데 토끼란 놀이 말입니다. 잿빛을 하고 있다가도 추운 겨울에는 잿빛 나는 털을 하얗게 털바꿈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묘한, 짐승들도 자기가 살 궁리들을 하면서 털바꿈을 하는데, 사람이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이름입니다.

대의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한 번 빙그르르 돌아서 나와야지 돌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천지가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안으로 굴리면서 돌아야 바로 내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생산해서, 내가 또 안으로 체험하고 안으로 굴려서 두 번 없는 두 번의 생산이 됐을 때, 비로소 나와 놀이

나 그 묘법의 진의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그저 "부처님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 "너 나오기 이전이다."고 하면서 그것만 엄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참된 과학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깨우쳐질까요? 천 년을 해 보고 만 년을 해 본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매를 자기가 무르익혀서 사람들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 그 맛 좋더라.' 이라고 자기 그릇대로, 자기 차원대로 맛이 나는 것을 말할 때 비로소 만 가지 맛이 나는 겁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관하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도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실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된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자살의 경우라면 입력이 되는 대로 의식 속에 차례로 입력이 된 자체가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자꾸 발사가 되는 거죠. '넌 죽어야 한다.' 그러구 말입니다. 또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식이 자꾸 총동질을 합니다. 총동을 일으켜서, 핏계가 왜 가지고, 상대성의 핏계가 왜 가지고 그냥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깐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천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큰 일이 앞에 닦혔을 때 자기가 뒷고자 했던 것이 허탈하고 허망할 때,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전부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것 해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순간순간 돌아가니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했다고 하고 어떤 걸 봤다고 하겠습니까.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작용을

망상이야, 끊어야 된다 하지 말고

자기한테서 나온 거 자기한테 보아야

아닌 죽음이요, 다시 한 번 너와 내가 나뉘네. 세 번 없는 세 번의 죽음이요, 우리가 지금 참나를 발견한다, 마음을 깨닫는다, 도인이다 하는 말이 있기 이전에 말입니다. 손박하게 못났든 잘났든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화두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고 24시간 자나깨나 그것이 전체가 다 참선이요, 싱그러움이요, 법이요, 묘한 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서 억겁을 거쳐서 이 세상에 거듭 거듭 나오면서 이렇게 아픔과 쓰라림을 당했거늘 어찌 오늘날에 인간의 몸을 받아 가지고도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살면서 도 모릅니까. 지금 복장을 치면서 아파서 울면서도 모릅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불법과 우리 살림살이가 돌아오면 어불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선연(鮮妍)한 부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요.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요

문 저는 27세의 청년입니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 '성'이란 무엇입니까. 전 예전에는 '성'이라 하면 웬지 좌악시 하곤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는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저는 저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을 보는 눈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답 그 나이에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병고 때문에 고통이 크게 아니라 그 병고를 느끼는 마음이 문제